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밑그림 나왔다

총 126억 투입...약 2천㎡·지상 5층 규모·내년 완공 목표 VIP 산모실·영유아실·수유실 등 '힐링 테마' 시설 설계

광양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계안을 공개하고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는 정인화 시장을 비롯해 보건소, 미래여성의원, 건축설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착수보고회 당시 지문내용을 반영한 설계안에 대한 보완과 전문가 검토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광양시 중동 125-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6억원(도비 40억원, 시비 60억원, 민자 2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천106㎡, 지상 5층 규모로 2025년 건립될 예정이다.

공개된 설계안은 지난해 9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당선작으로 산모실(16-17실)과 영유아실, 수유실, 테라피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이 설계에 반영됐다.

설계 용역사는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바이오필릭' 디자인과 '행복한 나의 집'을 의미하는 까사미아(CASAMIA)를 더해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힐링을 테마로 산후조리원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내부 인테리어 계획은 산모가 산모실 입구에서부터 내 집으로 들어가는 듯한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복



광양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안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산후조리원 로비, 영유아실, 산모실 복도 설계안.



(광양시 제공)

도는 집 앞 골목길을 산책하는 것처럼 복도를 거닐며 자연스럽게 산모가 운동할 수 있게 해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산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산모실' 설계에 힘썼다. VIP 산모실은

4536㎡(13.72평)으로 전국 최고 크기이며, 일반 산모실 또한 37.80㎡(11.43평)으로 일반 산후조리원보다 큰 편이다. 산모실 층고도 일반 아파트 층고보다 높게 해 개방감을 주고 산모가 쾌적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김복덕 보건소장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기의 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에 중점을 뒀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인화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건

립은 출산의 공공성 확보와 체계적인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이를 낳는 일이 걱정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장성교육지원청은 축령산 자락에 위치한 서삼초등학교를 '아토피 치유학교'로 운영해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진은 아토피 치유학교 활동 중 교사와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교육지원청, 아토피 치유학교 운영

서삼초 폐교위기사 벗어나 총 56명 재학

장성교육지원청은 "최근 사계절 아토피 치유학교의 문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축령산 자락에 위치한 서삼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아토피 치유학교를 운영해 올해는 지역민 학

생 8명, 전학생 22명, 농산어촌 유학생 15명으로 전교생 45명, 유치원생 11명 등 전체 5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아토피 치유학교는 지난해 약 2개월간 시범 활동을 통해 비전(장기 목표)과 방향을 탐색한 후 올해 1기와 2기로

나뉘 3월부터 12월까지 28회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음식 체험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처방 및 한의사의 정기적 한방 진료 ▲축령산 편백숲·백암산 국립공원에서 숲 놀이 전문가,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속 놀이 ▲교육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편백숲에서 이뤄지는 숲속 전시회 ▲백양사 템플스테이를 통한 친환경 사찰음식 체험 등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농어촌공 담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지소유 농업인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최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 경력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합

계 농지이양은 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가입 연령 연장 ▲지급기한 연장 ▲지급단가 인상 등 사업의 지원혜택을 강화하고 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양=정승근 기자

곡성군 '안전한 농산물 생산' 주력

농산물 GAP 인증 수수료·안전성 분석비 전액 지원

곡성군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선호에 따라 지역 농가와 함께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멜론 재배 농가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도는 작물의 재배 환경과 재배 과정, 수확,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유해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허용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다.

군에서는 지금까지 750여개 농가가 참여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역 농



가들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와 안전성 분석비를 전액 지원해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보성군, 1회추경 7천44억 확정

본예산비 6.96% ↑ ...민생 활력·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보성군이 최근 보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7천4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31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6천588억원보다 458억원(6.96%)이 증가한 7천4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77억원(6.59%) 증액된 6천105억원 특별회계는 81억원(9.43%) 증액된 939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교부세 14억원, 시군 조정 교부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75억원을 반영했고, 부족한 세입은 여유 재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285억원을 반영했

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 활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보성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보조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소득 농림·축산업 육성을 위한 ▲보성-하동지역 차산업 협력 체계 구축 ▲중국 수출 농산물 마케팅 지원 ▲특량만 새포막 대체 품종 도입 시범 양식 ▲군농항 여촌신활력 증진 사업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북차마을 위계이션 조성 사업 등을 반영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SOC사업 및 고

육·문화·복지 사업으로는 ▲별교 공공버스터미널 신규 조성 사업 ▲시가지 공공 주차장 조성 사업 ▲회천 야구장 조성 사업 ▲파크 골프장 조성 ▲보성 문화 600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글로벌 융합 인재 육성 역사 문화 탐방 등을 편성했다.

김철우 군수는 "그동안 쌓아온 안정적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7,8기 유치한 대형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성의 발전과 변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 활력과 군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보성의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여수교육지원청, 지역 공생 교육 생태계 구축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에서 협력 방안 논의

여수교육지원청은 31일 "지난 29일 대회의실에서 전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제3차 정기회를 갖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정기회는 서경열 교육장, 김연식 위원장 등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복지 위주의 학생지원 방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성

공 개최를 위해 위원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서경열 교육장은 "여수 교육은 민관산학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아래 국립 1지구 초등학교 신설,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 추진 등 누적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번 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 여수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순천시, 국내 최초 수상 퍼레이드 선봬

'흑두루미·짱뚱어' 정원드림호에 연출...매일 2회 운영

순천시가 국내 최초 하천 수상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기존 정원드림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고려초기 순천 동천에 배가 드나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동천 배길 복원에 나섰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새롭게 복원된 배길을 따라 국가정원과 도심에 왕복하는 '정원드림호'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정원드림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더해 수상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 일일 동·식물을 모티브로 기존 '정원드림호'를 업그레이드 했다. 흑두루

미, 짱뚱어, 칠게 등 순천만을 대표하는 동물을 캐릭터화 했으며, 국가정원의 아름다운 화해와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했다.

수상 퍼레이드는 오는 4월부터 10월 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회 운영된다. 퍼레이드 선박에는 실제 관람객 복원에 나섰다.



짱뚱어 퍼레이드 배(조감도).

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아간에는 조명 등 화려한 연출을 더해 동천과 국가정원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정원드림호'는 일일 2회 운행될 예정이며 100% 현장발권으로 진행된다.

노관규 시장은 "주·야간에 진행되는 수상 퍼레이드는 각각 다른 매력을 선보여 국가정원과 순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멋진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흑두루미 퍼레이드 배(조감도).